안녕하세요, 그림 그리는 꿀벌 7조의 상담학과 홍지민입니다.

저는 철학상담 자료집을 읽었을 때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은 기반하는 학문과 사용하는 이론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치유를 위하는 게 같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, 세부 주제로 ‘상처받은 내면아이’를 선택했습니다.

‘상처받은 내면아이’란 존 브래드 쇼의 저서 <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>에서 나온 용어로, 유년 시절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해당 유년기에 마음이 고착화되는 것을 뜻합니다. ‘상처받은 내면아이’는 상호 의존증, 자기애성 성격장애, 신뢰의 문제, 표출된 행동, 내면적 행동, 마술적인 믿음, 친밀감 장애, 무질서한 행동, 중독적 및 강박적 행동, 공허감 등의 모습으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파괴시키기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